

창세기(11)

창세기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텔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들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그것은 앗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하시니라.”

주님, 오늘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나이다.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여서 불러 주셨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에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학자들이 에덴동산이라 하면 무슨 조그만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걸로 알지만, 사실은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에덴동산이구나’ 하는데, 그냥 에덴동산이 아니고 에덴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동쪽에 동산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평생 연구하라고 주었는데 세상 공부하는 머리를 싸매고 책을 쌓아놓고 시험 쳐서 빨리 합격해야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은 대충대충 보니까 문제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성경은 뭘 그렇게 보느냐고 하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저 삼천천까지도 다 그대로 되어 있고 총천연색으로 정말 엄청난 스펙타클이 펼쳐지는데, 그걸 보지 않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하고 이 땅에 기어 다니는 개미처럼 살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이 대체 어디 있느냐? 에덴이라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면 뭐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덴동산의 위치를 알게 되면 다른 성경 말씀하고 비교하여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서 설교하셨구나.’ ‘아,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구나.’ ‘아, 그래서 겐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구나.’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거길 가셨을까? 이것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는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고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까?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꼭 동산에 가셨을까? 왜 산 위에 올라 가르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4 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가르쳐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쪽 꿰어 보여주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새벽 3 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기쁨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선 먼저 봅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지금까지도 옛날 다윗 왕 때부터 싸움이 끊일 날이 없을까?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괴롭힌 다윗 때부터 다윗 왕국 때부터 지금까지도 필리스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괴롭히고 있고 폭탄 테러와 보복 테러를 자행하면서 왜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가? 테러로 물들어 있는 그 땅에 왜 기를 쓰고 가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0 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인데.” ‘피손’이란 히브리어로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 지역은 지금 남북 팔레스타인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강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습니다. 히데겔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앗시리아에 있는 티그리스강입니다. 티그리스강이 바로 옛날의 히데겔입니다. 그리고 기혼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 유프라테스부터 밀의 애굽강까지의 땅 소위 인류 역사에서 보면 초승달 지역이다 반달 지역이다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강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 장 10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어느 곳이나 물이 넘쳐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아 마치 소알에 온 것 같더라.” ‘주의 동산 같다’, 소돔이 어디 있습니까? 사해 근처에 있지요.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모스 1 장 5 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다마스쿠스에 빗장을 부수고 아웬 평지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홀을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시리아 백성이 실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로 에덴의 집이 다마스쿠스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에 이사야서 51 장 3 절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시온이란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이죠.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광야, 지금의 이스라엘이 광야입니다.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덴처럼 에덴동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지금은 감사와 노래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노래하지 못합니다. 슬퍼합니다. 이사야서 62 장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다.”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62 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덴의 동산처럼 만들 것이라고.

다음으로 열왕기하 19 장 12 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람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에덴의 자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하람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하람입니다. 창세기 15 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 장 18 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남쪽이죠, 남쪽은 에디오피아 근처죠.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가요? 반경 1600km 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귀한 땅이라고 내가 주겠다. 이왕 주시려면 지구 전체를 주시지 왜 그 지역을 얘기하셨을까? 하지만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고고학자들도 이것을 깨달아서 초승달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인류의 발상지라고 배웠잖아요. 그들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인류 역사는 그곳을 차지하려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너와 네 씨에게 주었다. 네 씨가 누굽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 장 보겠습니다. 3 장 16 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무슨 초승달 같은 조그만 지역을 차지하겠단 말인가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배운 것 또 신학에서 배운 것을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손해 보는 만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저 땅을 차지할 때 그 천년왕국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릴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손해 안 보려고 자기밖에 모르고, 옛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기 밖에 모른다. 자기 일에만 바쁘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의 일은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덕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움켜잡기만 하고 결국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 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 장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데, 44 장부터 쪽 보면 성전의 모든 치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47 절에서는 성전이 다 완성되었는데, 보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8 절 보겠습니다.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왜 동쪽으로 흘러갈까? 조금 전 창세기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강이 거기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갔다. 왜 동쪽으로 갔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까? 이게 바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흐르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스카랴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찾아볼 때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만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왜 에덴동산을 찾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에덴이라는 지역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분은 축복이죠. 14 장 4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감람산 즉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왜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셨을까? 왜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셨을까? 그냥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곳에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15 장 봅니다. 45 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에 오실 때는 완전히 아담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아담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담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이 아닌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5 장 22 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아담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도 구원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듭 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듭 나지 않으면 자기 밖에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아담도 왕이었습니다. 아담도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까? 네 씨와 여인의 씨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들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실패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을 시켜 온 땅을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는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땅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 장 9 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아멘.

그렇게 보면 스카라에서 보면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한 분밖에 없다. 다시 계시록 11 장 15 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사실은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해 이 땅으로 쫓겨 아직 땅까지 쫓겨

오지는 않았지만 공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초토화시키고 이미 심판하셨으며 때가 되면, 무슨 때입니까? 왜 사탄이 아직도 활개를 칩니까?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러냐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이겁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숫자가 찰 때까지, 내가 그냥 둔 것이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즘 사람들이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깜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이 있으면 땅의 것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에덴동산을 차지한 이후 땅을 통치해 온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이 땅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차지하게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하면서,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면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야 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잠깐 쾌락을 누리려고, 목사님들까지도 뭔가 잘해보려고 부흥 좀 시켜보려고 난리인 거예요. 부흥되면 뭐할 겁니까? 교회가 몇 명 되면 뭐합니까? 문제는 밖에 나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벌써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